

## 생명과 건강을 걸고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들어가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있다. 아이들의 식사를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다. 이들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무섭고 슬픈 사실들이 최근 하나둘씩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매우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학교를 매우 안전한 곳으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뛰놀고 공부하는 학교는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곳보다 유해하고 위험한 공간이 학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학교 급식 조리실이다.

### 산재의 위험에 둘러싸인 급식실 노동자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항상 고열의 조리기구와 음식물에 둘러싸인 채 일한다. 바닥은 물기와 기름기로 미끄러워서 자칫 넘어지거나라도 하면 골절은 물론 화상과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조리해야 하므로 조리기구들은 무겁고 크다. 노동자들이 다루기에 버거운 조리기구들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무서운 유해요인이 된다. 조리기구들 중에는 공장 기계를 연상케 하는 위험한 것들도 있어서 끼임, 절단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흡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아크릴아마이드, 다행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리기구 세척, 바닥 청소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세척제 역시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환기시설, 안전보호구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유해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폐암,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다.

## 심각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산재 실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산재는 2021년에 만 1,206건이 발생했다. 산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871건에서 2021년 1,206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에 발생한 산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넘어짐이 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307건, 근골격계질환 156건, 끼임 83건, 부딪힘 74건 등의 순이었다. 마치 제조업의 산재 실태를 보고 있는 듯하다. 산재 증가는 학교 급식실의 노동환경이 최근에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폐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021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된 후 2022년 4월 18일 현재까지 76명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의 산재 인정률이다. 그동안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2022년 4월 18일 현재까지 11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6명이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율이 69.1%에 이르렀다.

##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시급성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건강에 주목하면서도 정작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을 둘러싼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리공간, 안전보호구, 환기 시설 등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적극적인 검진과 조사를 통해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어떤 일보다 시급하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만든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